

정혜림·김국영 질주...광주시청 육상 '따라올 자 없다'

정혜림, 부상 털고 여자허들 7연패...광주시청 소속으로 5연패 김국영 400m계주 금메달...'100m 부정출발 실격' 아쉬움 털어



심재용(가운데) 광주시청 감독이 전국체전 400m계주에 출전한 여호수아·김국영·강의빈·김민균과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정혜림.

광주시청이 전국 최고 육상 실업팀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김국영이 100m에서 부정출발로 실격해 금메달 확보에 차질을 빚었으나 11일 금메달 2개를 수확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했다. 한국 육상 간판 스타 광주시청 정혜림(35)과 김국영(31)이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혜림은 이번 전국체전 여자허들 7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소속으로는 전국 체전 5연패다.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일반부 100m허들에서 13초32를 찍었다. 조은주(13초41·포함시청)와 류나희(13초60·안산시청)를 밀착이 따돌린 압도적인 레이서였다.

적잖은 나이의 정혜림은 그동안 불운했다. 2020년 코로나로 전국체전 포함 대부분의 대회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열렸다. 올해 목표는 네번째 아시아게임 도전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연기됐다. 부상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 9월 들어서야 계주 경기에 나서면서 트랙을 밟았다. 재활치료에 전념하면서 트랙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았다. '허들여제'는 한해 최고 대회인 전국체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준비기간은 겨우 한 달. 철치부심 전국체전 무대를 벌였던 그는 결국 부상을 털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혜림은 "나이 때문에 매년 기량과 경기력에 대해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며 "부상 예방을 위해 꾸준히 운동해온 결과가 현재까지 기량을 유지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육상 남자일반부 400m계주에서 여호수아, 김민균, 강의빈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획득

했다. 김국영은 이 금메달로 100m에서 부정출발로 실격된 아픔을 털어냈다. 예선에서 40초68을 기록한 광주시청은 결승에서 39초69로 경기도(39초96)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

승선을 통과했다. 경기도의 우승이 점쳐졌으나 광주시청의 저력과 파위가 앞섰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정혜림은 여전히 한국 최고 허들선수다. 짧은 준비기간과 실전 경험이 부

족했기 때문에 우려했으나 결과로서 건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계주도 경기도의 전력도 좋아 금메달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합심해 금메달을 일구었다"고 덧붙였다.

세팍타크로 불모지 광주, 메달 땀다

송원대, 창단 6개월만에 동메달



전국체전 출전사상 광주에 첫 메달을 안긴 송원대 세팍타크로팀. <송원대 세팍타크로팀 제공>

송원대 세팍타크로 팀이 창단 6개월 만에 전국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세팍타크로 불모지 광주에서 나온 첫 전국체전 메달이다. 송원대는 지난 8일 울산 신일중학교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세팍타크로 단체전 준결승에서 정주시청에 0-2로 패해 동메달을 따냈다. 1,2회전에서 충남 중부대, 울산과학대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정주시청에 가라앉혀 3위에 그쳤다. 국가대표가 포진한 정주시청은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실업팀이다. 송원대는 2세트에서 한 때 정주시청을 리드했으나 실업팀의 벽을 넘어서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송원대는 창단 6개월만에 메달을 수확, 전국체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난 4월 김성훈(태풍), 이승우(킬러), 우정호(피터), 이창진(피터·이하 1년)으로 창당한 신생팀 송원대는 일찌감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제33회 전국세팍타크로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제23회 전국남·여 중별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다. 이창진은 U-21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광주는 지난 2011년 고등부 세팍타크로팀 운영 이후 팀이 없어 전국체전 세팍타크로에 불참했으나 송원대 팀 창단으로 10년 만에 대회에 참가했다. 송원대의 이번 메달은 선수들과 부장교수인 김동재 교수가 땀 흘린 결과다. 송원대는 지도자가 없어 김 교수가 훈련프로그램을 짜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하면서 그동안 팀을 꾸려왔다. 전국대회에서는 코치석

에 앉을 지도자가 없어 윤정우 여자국가대표 코치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김동재 송원대 교수는 "전국체전에 첫 출전해 첫 메달을 수확함으로써 광주체육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있다"며 "학교의 적극적인 후원,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린 결과 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선수들이 추가 영입돼 관리차원에서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주에서 여고팀이 창단하는 등 세팍타크로 저변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재호주 대한체육회 '15년 우정' 눈길

광주시체육회와 재호주 대한체육회의 15년 우정이 전국체전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체육회(회장 이상동)와 재호주 대한체육회(회장 신필립)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울산에서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눴다. 시체육회는 지난 9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재호주 대한체육회 환영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동 체육회장, 신필립 호주체육회장 등 두 단체 임·직원 30명이 참석했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지난 15년간 이어온 두 기관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라고, 광주에 오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동(오른쪽) 광주시체육회장과 신필립 재호주 대한체육회장이 감사패를 주고받고 있다. <시체육회 제공>

시체육회와 재호주체육회는 지난 2007년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재호주체육회 관계자들이 제88회 광주체전 당시 광주를 방문, 상호 우호 증진과 선진 체육교류를 바탕으로 상생하자는 데 뜻을 모아 결연을 맺은 게 인연의 시작이다. 이후 매년 전국체전 때마다 우의를 다졌고 응원단도 구성해 서로 응원했다. 광주와 호주를 오가며 체육은 물론 문화교류도 이어왔다.

신필립 재호주 체육회장은 "광주와 호주의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겠다. 한국과 재외동포 선수단의 결연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 한인단체인 재호주 대한체육회는 이번 체전에 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재호주체육회는 지난 2005년부터 코알라 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전국체전 개최 도시에서 선수를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2022-2023 프로농구 정규리그 15일 개막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15일 막을 올린다.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11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개막 미디어 데이 행사에 참석해 저마다 선전을 다짐하고, 시즌 목표에 대해 말했다. 이번 시즌은 10개 구단 가운데 5개 팀의 감독이 바뀌고, 아시아 쿼터 대상이 기존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확대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변수가 큰 시즌으로 예상된다. 또 11일 KBL 이사회를 통해 신규 회원사인 데이브스포츠의 가입금 미납에 대한 조치가 발표되면서 미디어데이 행사장은 예전보다 훨씬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데이브 스포츠가 13일 정오까지 가입금 1차분 5억원을 내지 않으면 정규리그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번 시즌은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최초로 10개 구단이 아닌 9개 팀만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서다. 데이브 스포츠는 2021-2022시즌이 끝난 뒤 고양 오리온 구단을 인수했으며 캐롯손해보험을 네이밍 스폰서로 유치해 2022-2023시즌 데뷔를 앞두고 있다. 다만 가입금을 납부하지 못해 11일 오전 KBL이 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 고양 캐롯 점퍼스가 예정대로 정규리그에 출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시즌 프로농구는 10개 구

단이 정규리그 6라운드 54경기씩 치를 예정이다. 공식 개막전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SK와 안양 KGC인삼공사의 경기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나 SK가 4승 1패로 우승했다. 인삼공사 김상식, 현대모비스 조동현, 캐롯 김승기, LG 조상현, 삼성 은희석 등 5명의 새 사령탑이 팬들에게 선보이고 6개 팀이 필리핀 선수를 아시아 쿼터로 영입했다. 캐롯이 유일하게 일본인 선수인 모리구치 히사시를 아시아 쿼터로 기용한다. 프로농구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은 '농구영신'은 12월 31일 강원도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원주 DB와 전주 KCC의 경기로 열리며, 울스타전은 2023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정규리그가 2023년 3월 29일에 끝나며 4월부터 '봄 농구' 플레이오프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광주시산악연맹, 전국체전 종합 3위 달성

광주시산악연맹(회장 피길연)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이번 체전에 진선교 감독을 비롯해 이선규 전무이사과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시산악연맹은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불터링에서 이상수가 동메달, 스피드에서 신은철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김도현은 4위를 기록해 종합점수 434.55를 획득해 전국체전 산악부문 종합 3위를 달성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정직한 후보2
2관	티켓 투 파라다이스,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태평학교
3관	대우가, 오만: 천사의 탄생
4관	오만: 천사의 탄생
5관	인생은 아름다워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정직한 후보2
7관 씨네캐슬	티켓 투 파라다이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8관 씨네캐슬	스마일,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2022. 10. 1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